

## 2부 - 페어베언(W.Ronald D Fairbairn) 이론 중심으로 - 나쁜 내적 대상으로 인한 만성적 좌절과 중독

성격에 관한 정신분석학적 연구 책을 기본 교재로 사용되었습니다

p55

그의 실제 대상들에게 안전하게 의존할 수 있다고 충분히 확신할 수 있을 때만, 그는 차츰 유아적 의존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런 보장이 없을 때 그의 대상관계는 너무 심각한 분리 불안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는 유아적 의존을 포기할 수 없다.

인간으로서 사랑받는 동시에 자신의 사랑이 수용되길 바라는 욕망의 좌절은 아이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외상이다; 이런 외상은 무엇보다도 유아 성욕의 다양한 고착을 만들어내며, 아이는 실패한 외부 대상과의 정서적 관계를 보상하기 위해 고착된 유아적 성욕에 의존하게 된다. 근본적으로 이 대리 만족들(즉 자위와 항문 성애)은 모두 내재화된 대상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며 외부 세계에서 대상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지 못하는 개인은 그런 내재화된 대상들과 관계를 맺도록 강요받는다. 외부 대상들과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또한 노출증, 동성애, 가학증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은 붕괴된 자연스러운 정서적 관계를 건져 보려는 시도들로 간주되어야 한다.

p56

초기 아동기의 생물학적 역사를 고려할 때, 엄마의 젖가슴이라는 하나의 자연스런 부분 대상이 존재하며 엄마라는 가장 중요한 전체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에 비해 아버지는 두 번째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지적했듯이, 배설물은 자연적인 대상이 아니라 상징적인 대상이다; 성기도 그것이 남근 대상 즉 부분-대상으로 취급되는 한 마찬가지로 상징적 대상이다. 따라서 남성의 동성애에서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요소는 의심의 여지 없이 아버지의 페니스에 대한 추구이지만, 이 추구는 전체 대상을 부분-대상으로 대체하는 것을 포함하는 그리고 최초의 부분-대상(젖가슴)과의 구강적 관계를 재현하는 퇴행 현상이다. 따라서 아버지의 페니스에 대한 동성애적 추구는, 말하자면, 최초의 대상인 젖가슴의 추구로 환원될 수 있다. 집요하게 부분-대상으로서의 젖가슴을 유지하는 모습은 성기에 항상 구강적 의미를 부여하는 히스테리 환자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p57

유아적 의존 단계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대상과의 일차적 동일시이다.

p58

꿈에서 분화의 과정은 종종 만(gulf)이나 틈새(chasm)를 건너는 주제에서 반영된다 (건너는 주제는 퇴행적 방향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이처럼 틈새를 건너는 과정 그 자체는 일반적으로 상당한 불안을 수반한다; 그리고 이런 불안은 떨어지는 꿈, 고소 공포증 그리고 광장공포증과 같은 증상에서 표현된다. 다른 한편 이 과정의 실패에 대한 불안은 밀실 공포증 증세에서 또는 감옥에 감금되거나 바다에 빠지는 악몽에서 반영된다.

p60

분리에 수반되는 불안은 고립되는 것에 대한 공포로 드러나는 반면, 동일시에 수반되는 불안은 간혀 있거나 삼켜지는 것에 대한 공포로 드러난다. 이런 불안은 본질적으로 공포증적 불안이다.

축출에는 텅 비고 고갈되는 것에 대한 공포가 수반되며, 보유에는 너무 많이 축적되어 터져 버리는 것에 대한 공포가 수반된다(종종 암과 같은 질병에 대한 공포로 대치되기도 한다). 그런 불안은 본질적으로 강박증적 불안이다; 강박증 상태의 근처에는 대상을 보유하려는 충동과 축출하려는 충동 사이의 갈등이 존재한다.

공포증적 관점에서, 갈등은 대상으로부터의 도피와 대상으로 되돌아감 사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른 한편 강박증적 관점에서, 갈등은 대상의 축출과 보유 사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p61

강박증 기술은 본래 주로 가학적인 반면에, 공포증 기술은 주로 피학적이다.

히스테리 상태에서는 갈등은 단순히 대상에 대한 수용과 거절 사이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대상에 대한 수용은 히스테리 개인의 전형적인 강렬한 애정 관계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그러나 이런 정서적 관계가 것처럼 과장되는 것 자체가 거절에 대한 과잉 보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의문은 히스테리 개인이 보이는 해리적 성향에 의해 확인된다. 이 해리 현상이 성기에 대한 거절을 나타낸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분석은 항상 유아적 의존 시기 동안에 발생한, 거절된 성기와 최초의 리비도적 대상인 젖가슴 사이의 동일시를 드러낸다. 따라서 히스테리 개인이 특징적으로 해리시키는 것은 그의 신체 기관이나 그 기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이 갖는 분명한 의미는, 거절된 대상은 개인이 상당한 정도로 동일시하고 있는 내재화된 대상이라는 것이다.

p62

편집증과 히스테리 상태를 비교할 경우, 우리는 이 둘이 크게 대조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한다. 히스테리 개인이 외부 세계의 대상을 과대 평가하는 반면, 편집증적인 개인은 그들을 박해자로 간주한다; 그리고 히스테리 개인의 자신에 대한 태도는 자가 비하적 형태를 띠는 반면, 편집증적인 개인의 자신에 대한 태도는 과대주의의 형태를 띤다.

p64

유아적 의존 단계와 그 정신병리

유아는 자신의 존재와 신체적 안전감뿐만 아니라 심리적 욕구의 만족을 전적으로 대상에게 의존한다. 물론 성숙한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신체적 욕구와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서로에게 의존한다. 그러나 성숙한 개인의 의존은 심리적인 측면에서 무조건적이지 않다. 대조적으로, 아이의 의존은 무조건적인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아이의 무력함 때문이다. 우리는 또한 성인의 경우 대상관계의 폭이 상당히 넓은 반면, 유아의 경우 그것은 하나의 대상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고 있다. 따라서 유아에게 대상을 상실하는 것은 훨씬 더 심각한 것이 된다. 성숙한 개인이 아무리 중요한 대상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여전히 다른 대상들이 남아있다.

의존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자궁 안에 존재하는 태아의 상태이다.

p65

유아적 의존은 구강기적 의존에 해당된다-유아가 본래 구강기적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젖가슴이 그의 최초의 대상이라는 의미에서 유아의 의존이 구강기적 의존임을 주목해야 한다.

그런 이유로 구강기적으로 고착된 어떤 개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질병으로 고통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자신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

p66

초기 구강기에서 자연적인 대상은 어머니의 젖가슴이다; 그러나 후기 구강기에서 자연적인 대상은 젖가슴을 지닌 어머니이다. 따라서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옮겨가는 이동은 부분 대상이 전체 대상(또는 인간)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후기 구강기에서 깨물기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파괴적인 것이며, 실제로 모든 분화된 공격성의 원형으로 간주된다. 그 결과, 후기 구강기는 고도의 정서적인 양가성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함입을 추구하는 초기 구강기적 충동은 본질적으로 리비도적 충동에 해당되며, 좀 더 분화된 직접적인 공격성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실에 대한 인식은 분열성 상태에 기초한 문제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함입 충동은 먹은 것이 사라진다는 의미에서 파괴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충동의 목적은 파괴적이지 않다. 아이가 케이크를 '좋아한다'고 말할 때, 그 말은 케이크를 먹음으로써 그것이 사라질 것이며, 따라서 먹는다는 사실 자체가 파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동시에 케이크를 파괴하는 것은 아이의 '사랑'이 지닌 목적이 아니다. 아이의 관점에서 본다면, 케이크의 사라짐은 아이의 '사랑'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과이다.

p67

그가 정말로 바라는 것은 케이크를 먹는 것과 가지는 것 모두이다. 그러나 케이크가 '나쁜' 것으로 판명되면, 그는 그것을 뱉어내거나 아니면 병이 날 것이다. 다른 말로, 그는 그것을 거부한다; 그러나 그것이 나쁘다고 해서 그것을 깨물려고 들지는 않는다. 이러한 행동 유형은 특히 초기 구강기의 특성에 속한다. 그 대상이 좋은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것은 함입될 것이고, 나쁜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것은 거부될 것이다. 동시에 박탈이 경험되는 상황에서는, 비록 의도적이지는 않을지라도, 대상 그 자체가 그것의 내용물과 함께 함입되지는 않을까 그리고 그 결과 파괴되지는 않을까라는 불안이 발생한다. 그러나 후기 구강기에서 상황은 달라진다; 왜냐하면 그때 대상이 나쁜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는 그 대상에 의해 깨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리비도와 공격성 모두가 분화된 형태로 대상을 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후기 구강기의 특징인 양가감정이 출현한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초기 구강기 동안에 대상관계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정서적 갈등은 '빨 것인가 아니면 빨지 않을 것인가, 곧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사랑하지 않을 것인가' 라는 대안적인 형태를 취한다. 이것이 바로 분열성 상태의 근저에 놓여있는 갈등이다. 다른 한편, 후기 구강기의 특징적인 갈등은 '빨 것인가 아니면 깨물 것인가, 곧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증오할 것인가' 라는 대안적인 형태를 취한다. 이것이 바로 우울적 상태의 근저에 놓여있는 갈등이다. 따라서 분열성 개인의 중심적인 문제는 어떻게 사랑에 의해 대상을 파괴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가인 반면, 우울적 개인의 중심적인 문제는 어떻게 증오에 의해 대상을 파괴하지 않고 사랑할 것인가이다. 이것은 아주 다른 두 가지 문제이다.

p68

분열성 개인의 비극은 그의 사랑이 파괴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있다; 그는 자신의 사랑이 아주 파괴적인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현실 세계 안에 있는 대상들에게 리비도를 주지 못한다.

p69

실제 대상의 상실이 분열성 상태의 유일한 외상이라면, 분열성 개인의 위치는 그렇게 위태롭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대상의 상실에 수반되는 자아의 변형이 있다. 내재화된 대상에 대한 과도한 리비도 집종의 결과로 자기애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와 같은 자기애는 특히 분열성 개인의 특징에 속한다. 자기애에서 우리는 한결같이 다양한 정도의 우월한 태도를 발견한다. 분열성 개인의 이러한 우월한 태도는 내재화된 대상과의 관계에 기초해 있는 반면, 외부 현실 세계 안의 대상에 대한 분열성 개인의 기본적인 태도는 본질적으로 열등한 것이다. 외부 대상에 대한 열등성은 내재화된 대상과의 피상적인 동일시에 기초한 우월성의 겉모습으로 위장된다. 그러나 그러한 위장에도 불구하고 열등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것은 자아의 허약함을 나타내는 증거이다. 분열성 개인으로 하여금 자아의 통합을 방해하는 주된 요소는 대상에게 리비도를 주지 못하는 딜레마이다. 대상에게 리비도를 주지 못하는 문제는 대상을 상실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킨다. 분열성 개인의 관점에서 볼 때, 리비도 그 자체는 파괴적인 것으로 여겨지며, 그 리비도가 대상에게로 향할 때 그 대상은 상실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그 딜레마가 심각해질 때, 그것은 자아를 전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때 자아는 전혀 자체를 표현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나의 환자가 한 말에서 잘 드러난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할 말이 없다구요. 나는 텅 비어 있어요.'

p70

나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나는 아무 데도 쓸모없는 존재 같아요; 나는 해놓은 게 아무 것도 없어요. 나는 차갑고 마음은 굳어졌어요; 나는 아무 것도 느끼지 않아요. 나는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없어요; 내게는 모든 것이 허망하다고 느껴져요.' 이러한 말들은 자아가 철저하게 무기력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아의 존재 자체가 분열성 딜레마에 의해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분열성 상태의 특징적인 정서는 허망감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다.

다양한 분열성 현상 중에서 특별히 언급할만한 것들은 낭비되었다는 느낌, 비현실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과 그것에 대한 강렬한 자의식 등이다. 종합해보건대, 이런 다양한 현상들은 분명히 자아의 분열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나타낸다. 이 자아의 분열은 이미 주목된 바 있는 자아의 무력함과 고갈보다 더 근본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p71

많은 분열성 개인의 불안은 실제로 그런 폭발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나타낸다는 것 또한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런 공포는 일반적으로 미치는 것 또는 압박

한 재앙에 대한 공포로 나타난다. 따라서 심각한 리비도의 철수는 자아로 하여금 개인의 정서적 접촉을 추구하는 기본적인 리비도의 경향성을 억압함으로써 외적 대상과의 모든 정서적 관계를 회피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물론 분열성 개인의 경우, 이런 경향성은 본질적으로 구강적이다. 이런 노력이 성공할 때 개인은 자신이 아무 것도 갖고 있지 않거나 또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죽었거나 아니면 존재하기를 중단한 것처럼 느낀다고 말하게 된다. 리비도를 포기함으로써 자아는 그 자체를 유지시켜주는 에너지를 포기한다. 따라서 자아는 상실된다. 자아 상실은 분열성 개인이 리비도를 통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술들(과도기적 기술들을 포함한)을 동원해서 피해보려는 노력이 모두 실패할 때 도달하는 궁극적인 정신병리적 재앙이다. 따라서 분열성 상태는 본질적으로 방어가 아니다. 그것은 초기 구강기의 의존을 벗어나지 못한 개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재앙이다.

p75

만일 초기 구강기에 유아의 대상관계가 아주 불만족스럽다면, 이런 외상으로 인해 아이는 자신의 사랑이 나쁘고 파괴적이라서 자신이 사랑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런 반응은 이후에 분열성 경향을 발달시키기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 다른 한편, 후기 구강기에 유아의 대상관계가 특히 불만족스럽다면, 아이는 자신의 증오가 지닌 나쁨과 파괴성 때문에 자신이 사랑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런 반응은 이후에 우울적 경향을 발달시키기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

p83

나는 일차적으로 억압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죄책감이나 불쾌한 기억들이 아니라, 용납될 수 없을 정도로 나쁘게 내재화된 대상들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p84

따라서 기억이 억압된다면, 이것은 그 기억과 관련된 대상들이 내재화된 나쁜 대상들과 동일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충동이 억압된다면, 이것은 그런 충동이나 관련된 대상들이 자아의 기준에서 볼 때 나쁜 대상들이기 때문이다.

### 3. 억압된 대상들

성적 폭행의 희생자가 되었던 아이들은 자신들이 겪은 외상적 경험에 대해 어떤 설명도 하기 싫어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나를 가장 당황하게 했던 점은 희생자가 순진하면 할수록 그런 경험을 회상하는데 더 심하게 저항했다는 사실이다. 나는 성적 공격을 저지른 개인을 조사할 때, 그런 비슷한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결코 없다. 당시에 나는 이런 현상을, 성폭행의 희생자는 외상적 기억을 되살리는 것에 저항함으로써 자아에 의해 포기되고 억압된) 예

p85

상 밖의 리비도적 만족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반면, 성적 공격을 수행한 가해자는 전혀 죄책감도 없으며, 따라서 아무런 억압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 위에서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런 설명에 대해 늘 의심스러웠지만, 당시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 그러나 나의 현재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한 설명은 분명히 부적절한 것이다. 성폭행의 피해자가 외상적 기억을 되살리는 것에 저항하는 일차적인 이유는 이 기억이 나쁜 대상과의 관계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나의 견해이다. 피학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폭행당한 경험이 커다란 만족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평범한 개인의 경우, 그런 경험은 죄책감의 경험이 아니라 단순히 '나쁜' 것일 뿐이다.

「나쁜 대상과의 관계는 아이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치스러운 것으로 느껴진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따라서 아이가 그의 부모를 수치스러워 한다면(사례에서 빈번하게 발견하듯이), 그의 부모는 그에게 나쁜 대상이며, 성폭행의 희생자가 폭행당한 것에 대해 수치스럽게 느낀다는 사실도 같은 원리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 나쁜 대상과의 관계가 수치스럽다는 것은 초기 아동기에 모든 대상관계들이 동일시에 기초해 있다는 가정에 입각해서만 만족스럽게 설명될 수 있다.

p86

만약 아이의 대상이 그에게 나쁜 것으로 여겨진다면, 그는 자신을 나쁘다고 느낄 것이다: 아이가 자신을 나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그가 나쁜 대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나쁘게 행동하는 것에도 동일한 생각이 적용된다; 그리고 문제 아동의 배후에 항상 나쁜 부모가 있다는 (어쨌든 아이의 관점에서) 사실도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한다.

누구라도 내재화되고 억압된 나쁜 대상이 없는 상태로 유년기를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재화된 나쁜 대상들은 보다 깊은 수준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다. 어떤 개인이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지, 신경증적이 되는지, 정신병적이 되는지, '정상적'이 되는지는 주로 아래의 세 가지 요인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얼마나 많은 나쁜 대상이 그리고 얼마나 심하게 나쁜 대상이 무의식에 쌓여있는가? (2) 자아가 내재화된 나쁜 대상들과 얼마나 동일시되어 있는가? 그리고 (3) 이런 대상들에게서 자아를 보호하는 방어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그 방어는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p88

발달하는 자아가 내재화된 나쁜 대상을 다루려는 필사적인 시도에서 사용하는 가장

초기 형태의 방어는 가장 단순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억압이다. 이때 나쁜 대상은 단순히 무의식으로 쫓겨난다. 억압이 내재화된 나쁜 대상에 대한 적절한 방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자아를 위협하기 시작할 때에만, 네 가지 고전적인 정신병리적 방어들 즉 공포증, 강박증, 히스테리, 그리고 편집증 방어가 작동한다. 그러나 억압의 작용과 항상 관련되어 있는 특별히 연구를 필요로 하는 또 다른 형태의 방어가 있다. 나는 이것을 '초자아 방어', '죄책감 방어', 또는 '도덕적 방어' 라고 부른다.

나는 '자신의 대상에게 있는 나쁨의 요소를 자신이 대신 짊어지는' 아이에 대해 이미 말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이 과정을 나쁜 대상의 내재화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p 99

부정적 치료 반응은 리비도 쪽에서 억압된 대상들을 포기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부정적 치료 반응이 없을 때조차도, 같은 방향에서 우리는 저항의 극단적인 완고성에 대한 이유를 발견한다. 따라서 억압의 실제적인 극복은 환자가 자신의 억압된 대상에 대한 헌신 즉 이런 대상들이 나쁘며 그는 그것들이 무의식에서 풀려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극복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을 극복해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치료 과제로 보인다.

p100

## 9. 나쁜 대상들에 대한 리비도 집종의 해소

분석 기술의 여러 목표들 중에는 (1) 내재화되고 억압된 '묻혀있는 나쁜 대상들을 무의식에서 풀려나게 하는 것과 (2) 환자가 나쁜 대상들에게 부착시킨 리비도적 결속을 용해시키는 것,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p102

풀려난 나쁜 대상들이 그에게 더 이상 공포로 느껴지지 않게 될 때에만, 그는 실제로 치료의 힘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억압된 대상들의 풀려남은 결코 편집증 기술의 특징인 내재화된 나쁜 대상의 적극적인 외부 표현과 같은 것이 아니다. 내가 언급하는 현상은 억압에 의해 강요된 속박으로부터 나쁜 대상이 도망치는 것이다. 그런 나쁜 대상이 도망칠 때, 환자는 자신이 지금까지 의식하지 못했던 무서운 상황에 직면한다.

p103

내재화된 나쁜 대상들을 포함하는 무의식적 상황은 그러한 상황과 일치하는 외부 현실에 의해 활성화되기 쉬운 것으로 드러난다.

폭파된 군대 수송선의 선실에 갇히거나, 피난민들이 전투기에 의해 사격 당하는 모습 또는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시장이 폭격되는 모습을 목격하거나, 포로가 되지 않으려고 적의 보초의 목을 조르거나, 상관 때문에 절망하거나, 동성애자에게 시달리거나, 그리고 아내의 해산 때문에 신청했던 특별 휴가가 거절되는 것 등. 많은 경우 전시의 군대 생활은 그 자체가 외상적 상황에 가까우며, 군대 생활에서의 아주 작은 사건도 외상이 될 수 있다. 전시의 정신신경증 및 정신병 군인 환자들 사이에서 나는 소리치는 것을 참을 수 없어요,' '나는 군대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라는 불평들('나는 아내가 요리해 준 음식을 먹고 싶어요' 라는 말이 흔히 뒤따라오는)이 얼마나 흔한 것인지는 잘 알려져 있다. 무의식에서 나쁜 대상들이 풀려나면서 그런 외상적 경험들의 효과는 군인 환자의 전쟁 꿈에서 잘 드러난다. 예상할 수 있듯이, 가장 전형적인 것으로 적에게 추격 당하거나 총에 맞는 꿈 그리고 (종종 '커다란 검은 비행기'로 묘사되는) 적의 비행기에 의해 공격받는 악몽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나쁜 대상들의 풀려남은 다른 방식으로 예컨대 엄청난 무게에 짓눌리는 꿈, 누군가에 의해 목을 졸리는 꿈, 선사시대의 동물에게 쫓기는 꿈, 유령이 나타나는 꿈 그리고 상사가 고통을 지르는 꿈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꿈의 출현은 때때로 유년기의 억압된 기억들을 되살려내기도 한다. 내가 경험한 이런 종류의 가장 두드러진 사례는 반사회적 병사의 것인데, 그는 징집된 후 곧 분열성 상태가 되었고, 선사시대의 괴물과 형태 없는 것들 그리고 그를 태워버리는 응시하는 눈을 꿈에서 보기 시작했다. 그는 아주 유치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그의 의식은 잊었던 유년기의 수많은 기억들로 넘쳐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 그는 특히 어느 역의 승강장에서 유모차에 앉아 있으면서 그의 엄마가 형과 함께 기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던 기억에 집착했다. 실제로 그의 엄마는 그의 형을 배웅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받은 인상은 엄마도 역시 기차를 타고 그를 버려 둔 채 가버리는 것이었다. 이러한 유기하는 엄마에 대한 억압된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은 물론 무의식에서 나쁜 대상이 풀려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가 이 기억에 대해 말하고 나서 며칠이 지난 후에 그의 상점이 폭탄으로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그는 그 사건에서 비롯된 일을 처리하기 위해 24시간 동안의 외출을 허락 받았다. 그가 파손된 상점을 보았을 때, 그는 분열성 상태를 경험했으며; 그날 밤에 집에서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는 질식할 것 같았고, 집을 부수고 아내와 아이들을 죽이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경험했다. 그의 나쁜 대상들이 보복하기 위해 되돌아온 것이다.

p105

외상적 상황이 무의식에서 나쁜 대상들을 풀려나게 하는 것이라면, 환자가 겪는 어려움은 그가 이 나쁜 대상들에게서 도망치기 위한 방법일 것이다. 그는 그것들에 의해 시달리며, 그것들이 외상적 사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는 그 외상적 상황에 의해서도 시달린다. 나쁜 대상에 대한 리비도 집중을 치료적으로 해소하지 못했을 때, 그는 나쁜 대상들을 다시 한번 억압시킴으로써만 이시달림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것이 유령이 영계로 되돌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은 외상적 기억들이 (비록 꿈속에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상 생활에서 사라진 군인들의 태도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내가 만났던 군인 중의 하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이런 것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집에 가서 그모든 것을 잊고 싶어요'

p106

우리는 리비도가 좋은 대상뿐만 아니라 나쁜 대상(크리스토프의 사탄과의 동맹에서 보듯이)에게 부착되는 것을 보아왔다. 우리는 또한 리비도가 내재화되고 억압된 나쁜 대상들에게 집착하는 것을 보아왔다. 이제 나쁜 대상과의 관계는 가학적이거나 피학적인 성질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프로이트가 '죽음 본능'의 범주 아래 묘사한 것은 대부분 내재화된 나쁜 대상과의 피학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내재화된 나쁜 대상과의 가학적 관계는 죽음 본능의 출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그런 관계들은 대부분 피학적으로 기운 가-피학적 성질을 갖는다

p109

초자아는 나쁜 대상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서 작용한다. 나쁜 대상의 회귀는 그 자체로서 억압이라는 방어가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도덕적 방어의 실패와 초자아 권위의 붕괴를 의미한다. 전시에 붕괴를 겪는 병사는 따라서 분리 불안뿐만 아니라 초자아의 호소, 즉 그에게 무장을 하고 자신의 국가에 복무하라고 명령하는 초자아의 호소가 기능하지 못하고 그것이 심각한 불안으로 대체되는 현상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따라서 실제적인 관점에서 그에게 군대는 초자아 기능을 수행하기를 중단하고, 나쁜 대상의 지위를 갖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신신경증 또는 정신병적인 병사는 자신의 상사가 큰소리로 말하는 것을 참지 못하며 군대 음식을 먹지 못한다. 그의 눈에는 모든 명령은 악의적인 아버지의 폭행과 같은 것이 되고, 취사실에서 요리되는 '기름기 많은' 스투는 악의적인 어머니의 젖에서 나오는 독과 같은 것이 된다.

p111

모든 정신병리의 궁극적 기원을 발달하는 자아가 겪는 대상관계의 장애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p114

개인이 자신의 충동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는 명백히 대상관계의 문제이며 또한 그의 성격의 문제이다; 그리고 (기질적 요소와는 별도로) 성격의 문제는 자아가 내재화된 대상들과 갖는 관계와 떼어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또는 곧 설명하게 될 몇 가지 이유들로 인해 내가 선호하듯이, 자아의 다양한 부분들이 내재화된 대상들과 맺는 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p123

“우울증’의 주된 정서인 ‘우울감’ 과 분열성의 주된 정서인 ‘허망감’ 사이의 차이에 대한 나의 언급(1941)을 반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관찰자의 관점에서 볼 때, 분열성 개인들이 아주 일반적으로 자신이 ‘우울하다’고 말한다는 점에서 이 두 정서의 차이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사실 ‘우울하다’ 라는 친숙한 용어는 임상 실제에서 허망감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p125

억압은 (성기적 의미에서건 아니건, 근친상간적 충동에 대한 방어로써가 아니라) 일차적으로 ‘나쁜’ 내재화된 대상들에 대한 방어로써 시작되며, 죄책감은 나쁜 내재화된 대상들을 포함하는 상황에 대한 부가적인 방어로써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죄책감은 아이가 자신의 부모가 무조건적으로 (즉 리비도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조건적으로 (즉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견디기 쉽다는 원리에서 비롯된다. 전자의 태도에서 후자의 태도로의 변화 과정을 서술하기 위해 나는 ‘도덕적 방어’ 라는 용어를 도입했다; 그리고 나의 견해에 따르면, ‘도덕적 방어’를 통해서만 초자아가 생겨난다. 따라서 초자아 형성은 새로운 수준의 구조적 조직화를 나타낸다.

p128

억압은 일차적으로 나쁜 내재화된 대상을 지향한다는 나의 견해는 궁극적으로 정신 구조 개념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내가 이 방향으로 커다란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환자 중 한 사람이 보고한 꿈의 분석 덕이었다. 기혼 여성인 그 환자는 본래 불감증 문제로 분석을 받으러 왔다. 그녀의 불감증은 의심할 여지없이 히스테리성 해리 현상(질의 히스테리적인 마비와 결합된 성적 무감각증)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모든 현상이 그렇듯이 그것은 일반적인 성격 문제의 일부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꿈 자체는 아주 단순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과학의 역사에서 종종 그렇듯이 근본적인 진실을 담고 있었고, 그 점에서 내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 꿈의 (드러난) 내용은 간단한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꿈속에서 그녀는 집안 대대로 내려온 유서 깊은 건물에서 유명한 여배우에게 심하게 공격받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지만, 그는 너무 무기력해서 그녀를 전혀 보호해줄 수 없었다. 그 여배우는 공격을 가한 후에 돌아서서 무대에서 그녀가 맡은 역을 계속해서 연기했다. 그녀의 공격은 공연 중의 막간에 일어난 것이었다. 그때 나의 환자는 바닥에 피를 흘리며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녀가 바라보고 있는 동안 그 모습은 갑자기 남자의 모습으로 변했다. 그때부터 그 인

물은 자신과 남자 사이를 오가며 바뀌었고, 결국 그녀는 극심한 불안 상태로 잠에서 깨었다.

p129

결국 그녀는 극심한 불안 상태로 잠에서 깨었다. 그녀는 그 꿈속의 남자는 그녀의 남편이 최근에 구입한 것과 아주 비슷한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가 그녀의 부추김 때문에 이 양복을 샀지만 가봉을 할 때에는 '그의 금발머리 여직원' 을 데리고 갔다고 내게 말해주었다. 이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었다. 꿈속에서 그가 무기력한 방관자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실은 그 공격이 그녀 못지 않게 그에게로 향해져 있다는 자연스런 생각을 확인해준다. 나는 추후 연상을 통해 이 생각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공격을 가한 여배우는 공격받은 그녀 자신만큼이나 그녀 자신의 인격의 일부를 나타낸다는 생각도 이어지는 연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실질적으로 꿈에 등장한 여배우는 그녀의 어떤 면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녀는 본래 타인들을 향해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 내성적이고 철수된 성격이었지만, 겉으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고 마치 그러한 겉모습이 진짜인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었다. 그녀가 아동기 이후로부터 경험해온 리비도적 정동은 주로 피학적인 양상을 띤 비밀스런 환상의 삶에서 주로 표현되고 있었다; 그러나 외부 현실의 삶에서 그녀는 대체로 역할, 예컨대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좋은 여주인 그리고 좋은 여류 사업가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전념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꿈에서 남편에게 전가된 무기력은 부가적인 중요성을 갖게 된다; 설령 그녀가 아주 성공적으로 좋은 아내의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그녀의 실제 인격은 그에게 전혀 다가갈 수 없었고, 그가 알고 있는 좋은 아내는 사실상 연기를 잘하는 배우의 모습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은 정서적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에서도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녀는 불감증을 갖고 있으면서도 성교 중에 마치 자신이 성적 흥분과 만족을 느낀다는 인상을 주었다.

p130

게다가 분석에서 드러났듯이, 그녀의 불감증은 의심할 나위 없이 자신 안에 있는 리비도적 요소에 대한 공격일 뿐만 아니라 리비도 적 대상으로서의 남편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녀가 이 꿈에서 여배우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가 남편에 대해 숨겨진 공격성을 갖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 꿈에서 또한 분명해지는 것은 그녀가 공격 대상으로서의 남편과 동일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지점에서 그녀가 이꿈을 꾸었을 때 그녀의 남편은 전투 요원 중의 일원이었고 휴가를 받아 곧 집에 돌아올 예정이었다는 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가 돌아오기 전날 밤 그 꿈을 꾸기 직전에 그녀는 갑자기 인후염을 앓았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우연의 일치라 아니었으며, 따라서 그녀가 공격 대상으로서의 남편과 동일시되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었다. 이 꿈속의 상황은 그녀가 한편으로 그녀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공격성을 발산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리비도적 대상으로서의 남편에게 간접적으로 공격성을 발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피상적인 수준에서 이 상황은 꿈꾼 이가 우울적 패턴에 따라 자신의 공격성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순간에 자신의 양가적 태도 안에 포함되어 있던 공격적 요소를 남편으로부터 자신에게로 돌린 결과로 해석되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이 보고된 실제 회기에서 이 해석은 피상적인 수준에서조차도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었다.

p131

우리는 이미 그 여배우의 상이 리비도적 관계에 대해 적대적인 그녀 자신의 측면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분석 과정에서 이미 그 여배우의 상이 최소한 꿈꾼 이의 어머니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풍부한 연상들이 출현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자발적인 애정을 보이지 않았고, 그녀를 향한 자녀들의 감정 표현을 반기지도 않았으며, 무대 위에서 연기하듯 삶을 살아가는 인위적인 여자였다. 따라서 꿈속의 여배우는 꿈꾼 이의 억압된 어머니 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녀가 자신의 어머니를 명백한 '초자아' 상으로 꿈의 드라마에 끌어들이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꿈의 심층적 해석은 오이디푸스 상황의 측면에서 행해져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의 요소도 포함된 것이 아닌가 라고 자연스럽게 묻게 된다. 실제로 그녀의 아버지는 1914-18년의 전쟁 중에 전투에서 죽었는데, 그때 그녀는 겨우 여섯 살이었다; 그리고 분석에서 그녀는 흥분시키고 거절하는 리비도적 대상으로서의 아버지를 향한 상당한 분노를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 꿈에서 그녀의 아버지상을 찾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공격을 받는 그녀 자신의 상과 변갈아 나타났던 남자밖에 없다. 물론 그 남자는 그녀의 남편을 나타낸다; 그러나 분석 중 전이에서 그녀의 남편과 그녀의 아버지가 밀접하게 동일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점에서 그 남자는 해석의 더 깊은 수준에서 그녀의 아버지를 나타낸다고 추론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이 수준에서 그 꿈은 그녀와 아버지가 근친상간적 관계로 인한 죄책감 때문에 어머니에게 죽임을 당하는 환상적 내용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동시에 그 꿈은 정신구조의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는데, 그 해석은 (어머니 의해 형태 지어진 초자아에 의해 촉발된) 아버지와 근친상간적 리비도 애착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발생한 리비도의 억압을 나타내는 것이 될 것이다.

나는 꿈에서 나타나는 모든 상들은 꿈꾼 이 자신의 성격의 부분들(자아, 초자아, 원본능으로 불리는)이거나 아니면 자아가 동일시한 것들을 나타낸다는 견해를 공식화했다. 이 견해를 좀더 끌고간다면, 꿈은 본래 소망-충족이 아니라 내적 실재에 존재하는 상황의 극화 또는 '단편들'(마치 단편 영화처럼)이라는 생각으로 인도할 것이다. 나는 꿈이 본래 내적 실재에 존재하는 상황의 단편' 들이라는 견해를 지금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꿈에서 나타나는 인물들에 관해서, 나는 그런 인물들이 '자아'의 부분들이나 내재화된 대상들을 나타낸다는 것으로 나의 견해를 수정하였다. 따라서 나의 현재의

견해에 따르면, 꿈에서 묘사된 상황은 심리내적 구조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 꿈의 드러난 내용에서 실제 드라마는 네 가지 인물을 포함한다: (1) 공격당하는 꿈꾼 이 자신 (2) 이 인물이 변형되어 나타나는 남자 (3) 공격하는 여배우 그리고 (4) 무기력한 방관자로서의 남편. 그러나 우리는 이 드라마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유일한 목격자인 꿈꾸는 사람 자신, 즉 관찰하는 자아의 존재를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 꿈에서 다루어져야 할 인물은 목격자를 포함해서 다섯이다. 만일 꿈이 몇 초 전에 끝났더라면, 꿈속의 '나'를 포함해서 단지 네 명의 인물만이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꿈은 다섯 번째 막에 이르러서야 방관자였던 남자가 공격 대상으로서의 꿈꾼 이로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남자가 출현하기 전까지 공격 대상이 합성된 인물(a composite figure)이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두 번째 인물을 합성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서, 이 현상은 특별한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왜냐하면 공격하는 여배우는 의심할 나위 없이 꿈꾼 이의 또 다른 측면과 꿈꾼 이의 엄마 모두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감히 한 걸음 더 나아가 꿈이 몇 초간 더 지속되었더라면 다섯 명의 인물 대신에 여섯 명의 인물이 등장했을 것이라고 제안할 수 있다. 이 꿈의 잠재적 내용 안에는 여섯 명의 인물이 들어있다고 추론하는 것은 안전하다; 그리고 이것은 이 꿈의 해석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꿈에서 여섯 명의 인물이 나타났다고 가정하고, 이 인물들의 성질을 생각해보자.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것은 그 인물들이 두 부류, 즉 자아 구조와 대상 구조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각 부류에는 세 구성원이 있다. 자아 구조에는 (1) 관찰하는 자아 또는 '나' (2) 공격받는 자아 그리고 (3) 공격하는 자아가 포함되어 있으며, 대상 구조에는 (1) 관찰하는 대상으로서의 꿈꾼이의 남편 (2) 공격받는 대상 그리고 (3) 공격하는 대상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아 구조들은 대상 구조들과 서로 짝을 이룬다는 두 번째 사실을 발견한다. 서로 짝을 이루는 쌍은 세 가지이다 (1) 관찰하는 자아와 역시 관찰자로 묘사되는 그녀의 남편 (2) 공격하는 자아와 그녀의 엄마를 나타내는 공격하는

p135

대상 그리고 (3) 공격받는 자아와 그녀의 아버지를 나타내는 공격받는 대상.

이런 관찰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보다 만족스런 꿈의 해석을 위해 내가 도달한 결론을 살펴보자. 그것은 다음과 같다. 꿈에서 독립적으로 나타난 세 가지 자아 인물은 실제로 꿈꾼 이의 마음속에 있는 독립된 자아 구조를 나타낸다. 따라서 꿈꾼 이의 자아는 분열성 자리와 유사하게 세 개의 독립된 자아들, 즉 중심적 자아와 중심적 자아에서 떨어져 나온 다른 두 개의 부차적 자아들로 분열된다. 그리고 이 두 부차적 자아들 중의 하나는 다른 하나에 의해 공격을 받는 대상이 된다. 공격받은 자아가 꿈꾼

이의 아버지(전이에서는 남편)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아는 리비도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추론해도 좋다; 따라서 그것은 '리비도적 자아'로 적절히 서술될 수 있다. 공격하는 자아는 억압적 인물로서의 꿈꾼 이의 엄마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의 역할은 전통적인 오이디푸스 상황에서의 초자아의 역할과 유사하다. 그러나 그것의 공격이 도덕적이라기보다는 징벌적인 요소를 담고 있고 또한 죄책감이 아니라 명백한 불안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공격하는 자아와 초자아를 동등시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어쨌든 내가 이미 지적했듯이, 정신병리의 원인과 관련된 중요성을 초자아가 기능하는 수준보다 더 아래 수준에 두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동시에 꿈이 발생한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꿈꾼 이와 남편 사이의 리비도적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꿈에서 우리는 공격하는 자아의 작용을 그러한 손상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볼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공격하는 자아는 내적 파괴자(internal saboteur)로 가장 적절하게 묘사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꿈이 나타내는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의 구조적 의미를 결정하기

p136

위해서 나는 자아, 원본능, 초자아라는 고전적 분류를 포기하고 세 개의 독립된 자아 (1) 중심적 자아('나') (2) 리비도적 자아 그리고 (3) 내가 내적 파괴자로 부른 공격적이고 박해적인 자아로 분열된 새로운 분류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에 계속된 경험을 통해 나는 이 분류가 보편적인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믿게 되었다.

중심적 자아는 꿈을 관찰하고 묘사하는 깨어있는 '나'라는 점에서 많은 부분이 전 의식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런 추론은 꿈꾼 이의 남편이 외부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며, 꿈꾸기 전날 밤에 꿈꾼 이의 의식적인 사고를 크게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의해 지지받는다. 비록 꿈속에서 그를 나타내는 인물이 내재화된 대상으로 간주될지라도, 명백히 이 대상은 정신 내에서 꿈에 등장한 다른 대상들(아동기에 내재화된 부모 대상들)보다 훨씬 더 표면적인 위치에 있다; 그리고 외부 현실에서의 대상과 비교적 가깝게 일치할 것

p137

이다. 따라서 외적 대상으로서의 남편에 대한 꿈꾼 이의 태도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태도는 본질적으로 양가적인 것이며 특히 부부 관계라는 측면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그를 향한 공격성이 적극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다. 마찬가지로 그를 향한 그녀의 리비도적 애착은 심각하게 억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꿈에 대한 연상에서 그녀는 그에게 깊은 감정을 갖지 못하고, 그녀 자신을 그에게 주지 못하는 데 대해서 자신을 책망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결핍을 교정하기 위한 그녀의 의식적인 능력은 단지 '좋은 아내'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에 대한 그녀의 숨겨진 공격성과 숨겨진 리비도적 욕구는 꿈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이 제기

된다. 동시에 침묵 꿈꾼 여배우, 리비도적 자아가 꿈꾼 대상의 인물을 모델로 공격당한 자아를 공격당한 후에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생각나게 한다. 리비도적 자아는 깊은 수준에서 꿈꾼 이의 아버지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그녀의 남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남자의 모습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는 공격받는 그녀 자신과 그 남자로 번갈아가며 나타났다. 따라서 그녀의 공격성의 상당한 정도가 외적 대상으로서의 남편에게로 향하는 대신에 그녀의 리비도적 자아뿐만 아니라 리비도적 자아와 밀접히 연결된 내적 대상을 향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마찬가지로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양의 공격성이 중심적 자아가 아닌 내적 파괴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때 그녀의 양가감정 안에 있는 리비도적 요소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확인했듯이, 남편에 대한 그녀의 리비도적 태도는 의식 수준에서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정도로 황폐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그녀의 공격성이 그렇듯이 그녀의 리비도 또한 상당한 정

p138

도로 중심적 자아의 지배에서 벗어나 있다. 이런 정도의 리비도가 중심적 자아에 의해 사용되었다면, 그 대상은 모호한 상태로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꿈에서 리비도적 대상은 틀림없이 공격 대상과 리비도적 자기의 모습으로 번갈아 나타났던 그 남자로 추측된다. 그러나 공격성과는 달리 리비도는 내적 파괴자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정반대로 그것은 리비도적 자아의 지배를 받는다. 바로 이런 이유로 나는 '리비도적 자아'란 용어를 선택했다. 이쯤 해서 아마도 독자들의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한 의문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비록 꿈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났지만, 내적 파괴자에 의한 공격이 단지 이차적으로 리비도적 자아에게로 향하고 있으며, 일차적으로는 이 자아와 번갈아 나타나는 리비도적 대상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한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리비도적 자아가 겪는 고통을 리비도적 자아 편에서 공격받는 대상과 전적으로 동일시한 증거로서 그리고 그 대상에 강한 리비도적 애착을 형성한 증거로서 간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동일시와 애착 때문에 리비도적 자아는 대상에게 헌신하게 되고, 따라서 고통을 기꺼이 견딜 수 있게 된다. 꿈에서 깨어나면서 꿈꾼 이가 경험한 불안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나는 이 불안이 리비도적 자아가 겪는 고통이 의식으로 분출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감히 제안한다.

p139

우리는 꿈에서 여배우가 꿈꾼 이의 엄마와 꿈꾼 이 자신 모두를 나타내는 합성된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내적 파괴자는 그 대상과 밀접히 동일시되고 있고, 따라서 강한 리비도적 애착이 이 대상에게 향해 있다고 쉽게 간주할 수 있다.

거절하는 대상이었다는 것과 이 대상의 이름으로 내적 파괴자의 공격성이 리비도적 대상을 향했다는 것을 이유로 제시할 것이다. 중심적 자아가 다른 자아들과 갖는 관계의 성질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중심적 자아가 무의식의 요소뿐만 아니라 전의식과 의식의 요소 모두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다른 자아들은 무의식적인 요소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리비도적 자아와 내적 파괴자 모두는 중심적 자아에 의해 거절된 자아의 부분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추론은 중심적 자아의 지배에서 벗어난 상당한 양의 리비도와 공격성이 부차적 자아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부차적 자아들이 중심적 자아에 의해 거절된 것이라고 가정할 경우, 이 거절의 역동적 요소에 대해 묻게 된다. 분명코 거절의 역동적 요소는 리비도로 구성 되었을리가 없고, 공격성으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p141

프로이트의 '자아'와는 달리, '중심적 자아'는 다른 어떤 것(원본능)에서 생겨난 것이거나, 또는 그것의 활동 에너지를 어떤 원모체로부터 오는 충동에 의존하는, 본능의 표면 위에 위치한 수동적인 구조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와는 반대로, 다른 정신구조들보다 먼저 생겨났다는 점에서 '중심적 자아'는 일차적인 역동적 구조로 인식된다. 물론 '리비도적 자아'는 프로이트의 '원본능'에 해당한다; 그러나 프로이트의 견해에서 '자아'는 '원본능'의 파생물인 반면에 나의 견해에서 '원본능'에 해당하는) '리비도적 자아'는 ('자아'에 해당하는) '중심적 자아'의 파생물이다. '리비도적 자아'는 단순히 본능적 충동의 저장소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다양한 측면에서 유아적 특성을 지녔고, 조직화가 덜 이루어졌으며, 현실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며, 내재화된 대상에 더 많이 헌신한다는 점에서 '중심적 자아'와 차이가 있지만, '중심적 자아'와 견줄 수 있는 역동적 구조로서 인식된다는 점에서 '원본능'과는 다르다. 내적 파괴자'는 많은 점에서 '초아'와 다르다. 그 이유 중 하나를 든다면, 그것은 전혀 내적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것은 비록 내적 자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을지라도, 전적으로 자아 구조이다. 실제로 '초자아'는 '내적 파괴자'라기보다는 이 구조와 그것과 연관된 대상의 복합체(꿈에서 여배우 상처럼)에 해당한다. 동시에 내적 파괴자'는 전혀 도덕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초자아'와 다르다. 따라서 나는 비록 초자아의 활동이 불안을 낳는 근원이라 하더라도, 죄책감이라는 정동이 초자아의 활동에서 기인하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그런 불안은 죄책감과 융합한다. 그러나 두 가지 정서는 이론적으로 구별될 수 있다. 여기서 내가 내적 파괴자의 개념을 도입하면서도 (원본능의 개념을 포기한 것과는 달리) 초자아의 개념을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나는 초자아 없이는 죄책감에 대한 만족스런 심리학적 설명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초자아는 내적 파괴자가 작용하는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신구조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p148

실제로 유아의 나쁜 대상은 그만큼 갈망하는 대상이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내재화된다. 문제는 그것이 내재화된 후에 나쁜 것으로 남는다는 것, 즉 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남는다는 것이다.

만족스럽지 못한 대상은 소위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한편으로 좌절을 주고 다른 한편으로 유혹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그것의 본질적인 '나쁨'은 엄밀히 말해서 그것이 유혹과 좌절을 함께 결합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그는 만족스럽지 못한 대상을 통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욕구를 좌절시킬 뿐 아니라 그것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대상을 마음속으로 들여온다.

p149

그가 직면한 견딜 수 없는 외적 상황을 다루려고 시도할 때 최초로 사용하는 기술은 모성적 대상을 두 가지 대상, (a) '좋은' 대상과(b)'나쁜' 대상으로 분열시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나쁜 대상을 내재화하는 것이다:

즉, 그는 내재화된 내적 대상을 두 가지 대상, (a) 필요하거나 흥분시키는 대상과 (b) 좌절시키거나 거절하는 대상으로 분열시킨다.

이 두 가지 대상 모두를 억압한다. 그러나 여기서 상황은 복잡해진다; 왜냐하면 나눠지지 않은 전체 대상에 집중되었던 리비도가 분열로 인해 생긴 대상들에 의해 다양한 비율로 나눠지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분열로 인해 생긴 대상들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자아는 소위 위족(pseudopodia)을 발달시키는 것을 통해서 억압당하는 대상에 대한 리비도적 애착을 여전히 유지한다. 이런 위족의 발달은 자아 분열의 첫 단계를 나타낸다. 대상의 억압이 진행됨에 따라 자아의 초기 분열이 확립된다. 그 두 위족들은 그것들과의 연결을 유지하고 있는 중심적인 자아의 부분에 의해 거절된다; 그리고 그것들은 연관된 대상들과 함께 억압된다. 이런 식으로 두 부차적 자아들, 즉 리비도적 자아와 내적 파괴자는 중심적 자아로부터 분열되고, 이로써 여러 개의 자아가 생긴다.

p161

우리는 아이가 엄마와의 관계와는 달리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겪는 또 다른 차이를 만나게 된다. 그것은 엄마가 여자인 반면 아버지는 남자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처음에 아이가 두 부모의 성 차이를 인식한다는 것은 의심스럽다. 그가 인식하는 차이는 아버지에게는 젖가슴이 없다는 것 정도일 것이다. 따라서 그에게 아버지는 처음에 젖가슴이 없는 부모로 간주된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아버지와 맺는 관계가 엄마와의 관계보다 훨씬 더 정서적인 것일 수밖에 없는 주된 이유이다. 다른 한편, 아이는 엄마의 젖가슴과의 신체적인 경험에서 다양한 정도의 좌절 경험을 하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욕구는 아버지에 대한 욕구와 이후의 모든 성기적 욕구 밑바닥에 끈질기게 지속된다. 아이가 부모의 성 차이를 어느 정도 인식하게 될때 그리고 그의 발달 과정에서

그의 신체적 욕구가 (다양한 정도로) 성기의 경로를 따라 흐르는 경향성이 생겨날 때, 엄마에 대한 그의 욕구는 엄마의 성기에 대한 욕구를 포함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그의 욕구는 아버지의 성기에 대한 욕구를 포함하게 된다. 그러나 부모의 성기에 대한 아동의 신체적 욕구가 지니는 힘은 그의 정서적 욕구의 만족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가 만족스러울수록 부모의 성기에 대한 신체적 욕구는 덜 절박해진다.

그 결과 엄마의 성기 또는 아버지의 성기와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양가감정이 필수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 양가감정은 원초적 장면을 가학적인 것으로 인식하는데서 반영된다. 그러나 원초적 장면이 형성되는 시점에서 부모 사이의 관계는 아이에게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그리고 부모 각자와의 관계에서 질투가 생겨나기 시작한다. 물론 이 질투는 부분적으로 아이의 생물학적인 성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아동이 부모 각자와 맺는 정서적 관계에 의해서도 상당한 정도로 결정된다.

p164

오이디푸스 상황을 충분히 깊이 분석한다면, 그 상황은 한결같이 흥분시키는 내적 대상과 거절하는 내적 대상의 상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프로이트가 오이디푸스 상황의 개념을 이론화한 것은 물론 히스테리 현상의 기초 위에서였다.

나는 남성이건 여성이건 핵심적으로 젓가슴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드러나지 않는 히스테리 환자가 있다면, 그는 아직도 충분히 분석된 것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나는 긍정적인 오이디푸스 상황에 대한 깊은 분석은 세 가지 수준을 드러낸다고 감히 제안한다.

p165

그는 모든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 한쪽 부모상을 흥분시키는 대상으로 삼고 다른 한쪽 부모상을 거절하는 대상으로 삼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는 자신의 오이디푸스 상황을 구성한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양쪽 부모에 대한 양가감정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맨 밑바닥에는 흥분시키는 대상과 거절하는 대상 모두가 최초의 모습 그대로, 즉 그의 엄마 상 그대로 남아있다.

p184

대상관계와 상관없는 쾌락-추구 행동은 행동의 퇴화를 나타낸다. 여기서 나는 행동의 '퇴행' (regression)보다는 행동의 '퇴화' (deterioration)를 말하고 있다.

대상관계와 상관없는 쾌락-추구는 리비도적 욕구의 긴장 해소를 본질적인 목표로 삼는다. 물론 그런 과정은 아주 일반적으로 발생한다; 단순히 긴장 해소만을

p185

추구하는 행동은 대상관계에 어떤 실패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즉, 단순한 긴장 해소는 실제로 안전밸브의 역할을 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리비도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목표의 실패를 완화시키는 수단이다.

인간의 본능적 욕동은 일반적 성향이라는 형태를 띤다; 그리고 이것이 경험을 통해서 좀더 확고하고 분화된 패턴을 획득하게 된다. 아이가 결핍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현실에 대한 경험이다; 그리고 성인 관찰자에게 아이의 행동이 주로 쾌락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인상을 주는 이유는 현실을 향한 지향성의 결핍 때문이라기보다는 바로 현실에 대한 경험의 결핍 때문이다. 물론 아이의 경험은 성인의 것보다 더 정서적이며 더 충동적이고, 따라서 덜 통제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많은 좌절과 결합될 때, 그것은 아이로 하여금 성인보다도 더 많이 긴장-해소 행동에 의지하도록 이끈다. 그러나 내 견해로는 (나중에 현실 원리로 대치되는) 쾌락 원리에 의해 그의 행동이 결정된다는 결론은 잘못된 것이다. 본능적 행동이 비교적 경험과는 상관없이 굳어진 패턴을 따르는 동물들의 경우에, 행동의 원리는 것처럼 구분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물들에서는 대상-추구와 관련된 어려움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인간 아이는 동물 못지않게 대상을 추구한다; 그러나 그의 경우에 대상으로 가는 길은 대략적으로만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그는 길을 잃기 쉽다. 이 점에서 불길을 찾아가는 나방의 예를 들 수 있다. 나방이 불길을 찾아가갈 때, 그것이 뚜렷한 현실감의 결여를 보여주는 점에서 불행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다. 우리는 나방이 쾌락 추구에 의해 불길로 향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정 반대로 그것의 행동은 본래 대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추구하는 것은 불길이 아니라 빛이며, 따라서 그것은 쾌락 원리 때문이 아니라, 빛의 원천을 구별하지 못하는 제한된 현실감 때문에 불길을 향해 달려든다. 현실감은 본질적으로 정도의 문제이다. 아이의 현실감은 그 성질상 성인에 비해 떨어진다; 그러나 설령 그가 좌절에 직면해서 빛나가기 쉬울지라도, 그는 처음부터 현실감에 의해 안내를 받는다.

p190

따라서 우리는 세 단계의 리비도 발달 이론을 생각하게 된다: (1) 젖가슴을 적절한 생물학적 대상으로 갖는 단계, (2) 과도기 단계, (3) 이성의 성기를 적절한 생물학적 대상으로 갖는 단계. 이런 순서에 따라 거의 전적으로 엄마에게 의존해 있는 관계로부터 다양한 정도의 친밀성을 지닌 아주 복잡한 사회적 관계 체계로 성숙해 가면서, 아이의 대상관계는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발달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이 관계는 비록 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생물학적 대상과 확립한 관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생물학적 대상과의 관계가 미치는 영향은 더 크다. 물론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개인적 관계들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단계의 의미를 평가함에 있어서, 이 요소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게다가 그것들의 중요성은 학술적인 명칭을 부여해야 할 정도로 크다. 가장 초기

p191

단계에서 젓가슴에 대한 아이의 태도는 틀림없이 구강적으로 서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태도가 구강적인 이유는 그것이 함입적이기 때문이고, 또 구강이 함입에 사용되는 신체 기관이기 때문이다. 아이가 엄마와 맺는 개인적인 관계의 두드러진 특성은 전적인 의존이다. 그리고 이 의존은 일차적 동일시'라는 심리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대상으로부터의 분리는 (전쟁 시기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분리가 신경증적 군인이 겪는 가장 커다란 불안의 원천임을 확인할 수 있듯이) 아이의 가장 커다란 불안의 원천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고찰에 비추어 볼 때, 첫 번째 발달 단계를 유아적 의존 단계라고 서술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리고 물론 이 의존은 주로 대상에 대한 구강-함입적 태도에서 그리고 대상과의 일차적인 정서적 동일시의 태도에서 나타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최종 단계는 성숙한 의존 단계로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것은 관계할 수 있는 능력은 반드시 일종의 의존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독립 단계라는 말보다 적절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유아적 의존과는 달리 성숙한 의존은 함입의 일방적 태도나 일차적인 정서적 동일시에 의해서 특징지어지지 않는다. 그와는 반대로, 그것은 분화된 개인이 분화된 대상들과 협동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관계의 적절한 생물학적 대상은 물론 성기이다; 그것은 서로 평등하게 상호적으로 의존하는 분화된 두 개인들이 균형 있게 주고받는 관계를 포함한다.

p192

그리고 이 관계는 일차적 동일시와 함입이라는 특징을 찾아볼 수 없는 관계이다. 적어도 이상적인 모습은 그렇다; 그러나 물론 리비도 발달 과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점에서, 이 관계가 실제로 완전하게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이 단계는 변화에 따른 갈등과 어려움의 단계이기에 과도기적이라는 명칭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 따라서 예상할 수 있듯이, 그것은 특징적으로 갈등의 단계일 뿐 아니라 방어적 기술에 의존하는 단계이다. 이 기술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들은 편집증, 강박증, 히스테리 그리고 공포증이라는 네 가지 고전적인 기술이다. 그러나 이 네 가지 기술은 리비도 단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과도기 단계의 어려움을 다루기 위한 네 가지 대안적인 방법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과도기 단계에서 함입적 태도가 갖는 중요성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 함입적 태도는 젓의 섭취뿐 아니라 대상의 심리적 내재화, 즉 대상 표상을 심리적 구조로 함입하는데서 드러난다. 그 결과, 과도기의 커다란 과제는 분화된 외적 대상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내재화된 대상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또한 이 시기의 과제는 첫 단계 동안에 형성된 관계를 포기하는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게다가 상황은 이전

에 형성된 양가감정과 대상을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으로 나누는 분열로 인해 더욱 복잡해진다. 결과적으로, 대상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이 과도기 단계의 두드러진 특징이 된다; 그리고 이것은 외적 대상뿐만 아니라 내적 대상에도 적용된다. 특히 과도기 후기 단계보다 초기 대상의 제거가 더 두드러진 역할을 하는 과도기 초기 단계 동안에, 아이가 축출하고 배설하는 과정에 기초한 기술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항문기 단계의 출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여기에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과도기 단계 동안에 정신병리적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다양한 기술은 내재화된 대상을 다루기 위한 대안적 방법, 즉 내재화된 초기 대상들을 상실하지 아니한 채 제거하는 방법을 나타낸다는 사실이다.